

전일동향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한 1,383.2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86.50원(15:30 기준) 대비 0.50원 상승한 1,387.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유입과 중공업체 수주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한 1,383.2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0.9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7.00	1387.00	1376.50	1383.20	1380.60
	엔화	872.01	874.15	866.21	870.96	-
	유로화	1618.43	1620.09	1607.82	1616.54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8	-1.23	-4.51	-10.77
	결제환율(수입)	0.02	-0.22	-2.43	-7.1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대외 불확실성에...1,3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2.40, 15:30 기준) 대비 0.85원 상승한 1,383.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상승 전망한다. 간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세 프리미엄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고 있고,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한 점이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금일 환율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와 수출 호조에 따라 역내 달러 공급이 구조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감안하면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6.67 ~ 1387.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6690.8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85원 ↑
	■ 美 다우지수 : 53417.16, +140.15p(+0.2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10.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868 억원